

미안하구나
- 홍지연 첼로 독주회에서

윤제철(시인)

여럿이 어우러져 노래를 부를 때
드러나지 않았던 너
주인공으로 나와 불러주니
침착하면서도 묵직하고 깊이 있게
귀에 가장 잘 들리는 소리
진작 느끼지 못해 너의 매력을
이제서야 느끼고 있으니 미안하구나

너는 벌써부터 목이 쉬도록
정성을 다하여 들려주었을 노래를
마음속에 살고 있던 편견을 지우고
들으려는 노력을 다하여
마음껏 누리보는 즐거움에 빠졌다
들은 척도 않고 돌아앉았다가
이제서야 호들갑을 떨어 미안하구나

첼로는 음이 낮고 굵어서 합주를 할 경우 귀에 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독주를 들어보니 나름대로의 독특한 음이 귀를 놀라게 했다. 특히 잘 알려져 귀에 익숙한 가요를 들었을 때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평소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새삼스레 호들갑을 떠는 것같이 미안하였다.

일상에서 가까이 지내면서도 중요한 일을 함께 하지 않으면 수중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그런 분과 함께 하여 일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면만 기회를 갖지 못해 느끼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든 시속에 첼로처럼 귀하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한 그 가치를 가급적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나마 첼로의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초대해준 분께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또 다른 경우가 다가온다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맞아야 할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귀

이 경 엽(수필가)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다.’는 격언이 있다. 보는 것이 다른 감각에 비해 중요하다는 말이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듣는 것이 보는 것 못지않게 소중할 때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직원조회 때 뒷줄에 앉으면 앞에 계신 선생님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된다. 얼굴만큼이나 뒤통도 다양한 모양새들이다. 옷매무새도 제각각이고 머리의 생김새는 물론 헤어스타일에도 개성들이 빼곡히 묻어있다.

‘모두들 자신의 뒷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들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문득 묘한 흥미가 생긴다. 앞모습이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새로 꾸미겠지만 뒷모습은 누군가 보아주지 않으면 가꿀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앞모습은 속여도 뒷모습을 속일 수가 없다.’고 한 모양이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지을 때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수 없도록 만든 데는 필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릇 생명들에게는 뒷모습을 가꾸어 줄 배필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만히 보니 귓바퀴의 모양도 천차만별이다. 귓불이 축 늘어져 부처님 귀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귓불이 아예 없어 귀걸이를 하기조차 어려운 모양도 있다. 동그란 귀, 각진 귀, 양 옆으로 벌어진 당나귀 귀, 쫓긋한 토끼 귀 등 가지가지다. 어떤 귀가 복스러운지는 모르지만 귀의 모양은 거의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본래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다.

생일을 소위 ‘귀 빠진 날’이라고도 한다. 신생아의 신체 부위 중 가장 큰 것은 머리다. 그 중에서도 귀는 머리의 맨 바깥쪽에 붙어있어서 산모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부분이다. 귀 부분만 빠져나오면 출산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에 어미 뱃속에서 나온 날을 귀빠진 날이라고 했을 것이다.

어느 학자가 출산을 앞둔 두 마리의 너구리를 데려다가 실험을 하였다. 한 너구리에게는 자연분만을 하도록 했고, 다른 너구리에게는 진통제를 주입하여 출산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였다. 고통을 통해 분만을 한 어미 너구리는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모습을 보였으나, 진통제를 맞아 고통 없이 분만을 한 놈은 새끼를 그 자리에서 물어 죽이더라는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 클수록 모성애가 깊어진다는 것은 아마도 자연의 법칙인 듯하다. 또한, 생명이 쾌락을 통해 잉태되고 고통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한 데는 창조주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큰 형님이 폐 기능 약화로 한동안 고생 하시다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얼마 전 중환

자실에 입원을 하겠다. 아무런 의식 없이 기계가 불어넣어주는 산소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깨어날 가망이 전혀 없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금은 약물 투입을 중단하고 산소호흡기와 수액주사만을 남겨둔 상태다. 차디차게 식은 손을 잡고 흔들어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따금씩 목젓을 위아래로 움직일 뿐이다.

형님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장교로서 청춘을 군에 다 바쳤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형님은 줄곧 맏이로서 부모님을 대신해왔다.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기일이나 명절에는 큰형님 댁에 형제들 모두 모여 식사를 하며 회포를 풀곤 했다. 그런 큰형님이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예전의 당당함은 미라처럼 여윈 모습 그 어디에도 느낄 수가 없다.

함께 형님을 비러 간 아내도 적잖이 걱정 되는 모양이다. “곧 돌아가시는 것이 아닐까요?”하며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 나는 손가락을 가만히 입에 대면서 ‘형이 듣고 있을지 모른다.’고 작게 소곤거려 말을 하였다. 아내는 얼른 눈치를 채고는 근심스런 얼굴로 큰형의 동태를 살핀다.

형님은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다. 조카는 지난 일월에 결혼하여 임신을 한 지 다섯 달이 되었다. 당신의 외동딸이 몸을 풀 때 까지 맏이라도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모든 가족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기대마저 접어야 할 것 같다. 그나마 눈코 입 그리고 모든 촉감마저 사라진 지금, 혹시 귀는 살아있어, 듣고 계시지 않을까하는 한 가닥 희망으로 큰형의 귀에 바짝 대고 말씀을 들려본다.

“형님, 조카가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른 일어나셔서 손주 보셔야지요.”

그렇게 말을 하니 착각인 듯싶게 형님의 몸이 조금 움직이는 것도 같다. 아마도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하기만 하다. 머리의 양옆에 붙어서 해산하는 어미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모성애를 자극했던 귀가, 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 까지도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거기에는 필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주어진 면회시간이 다 되었다. 핏기 하나 없는 큰형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제 그만 가보겠다는 인사를 하였다. “형님, 아무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계세요. 또 올게요. 얼른 쾌차하셔서 일어나세요.” 쾌차하시라는 마지막 말은 아쉬운 마음에 그냥 해보는 중얼거림에 가깝다.

중환자실 문을 나서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큰형의 누워있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되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형님, 아무쪼록 평안히 계세요.”하고 중얼거림을 입안에 넣고 질경거렸다. 그러자 착시현상인 듯싶게 멀리서 바라본 큰형의 몸이 또다시 뒤척이는 것 같았다. 그제 만일 나를 향한 형님의 몸짓이었다면, ‘잘 가라.’는 건지, ‘잘 있으라.’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